

K-사극 촬영 중심지 '광한루원'

슈룹 등 사극 드라마 주요 촬영지로 각광... 아름다운 배경에 예능 촬영도 잇따라

광한루원은 남원시내 요천반에 조성된 대표적 전통정원으로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어 사극 드라마의 주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평가받는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은 인기 드라마였던 연모, 슈룹 등 K-사극의 대표 중심 촬영지로 대두 되면서 남원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올 한해 아름다운 배경을 자랑하는 광한루원에서 1박 2일, 6시내고향, 생생정보, 고독한 식탐가, 광대진 생방송 오늘 저녁, 국악한마당, 전북이 참 좋다 등 예능 8건, 붉은단심 슈룹, 금혼령 청춘월담, 꽃산비탈애사, 조선변화사, 조선정신과의사 유세봉 등 7건의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단골 사극 촬영지로서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광한루원은 1963년 1월 21일 국가 보물로 지정받았고, 1983년 7월 20일에는 국가사적이 되었으며,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8일 명승으로 지정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시대 전통정원이다.

김종학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장은 "광한루원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멋스러움을 간직한 전통정원으로 잘 살리고 보존하여 관광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제공함은 물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 광한루원

루원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멋스러움을 간직한 전통정원으로 잘 살리고 보존하여 관광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제공함은 물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문화원이 전북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제1기 풍물풍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2일 동짓날을 맞아 특별 기획 공연을 마련했다.

익산문화원, 제1기 풍물풍류교육 성료

8개월간 풍물·사물놀이·단소·아쟁 등 9개 강좌 교육

익산문화원이 전북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제1기 풍물풍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풍물, 사물놀이, 태평소, 단소, 피리, 아쟁, 해금 등 총 9개 강좌로 구성되어 8개월간 진행됐다.

문화원은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통 문화 향유와 전통문화 예술인 양성, 공연 참여 기회 등을 제공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2일 동짓날을 맞아 특별 기획 공연을 마련했다. 문화원은 동지

팔죽 나눔행사와 함께 풍물풍류교육 발표회를 서동관에서 진행했으며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풍물풍류교육 발표회 공연을 선보이고 팔죽과 팔뚝을 나눠주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풍물 풍류교육에 참여해서 발표회까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올 한해 전통예술의 흥겨움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 개최

사회적기업 돌레, 2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소리꾼 오정해 무대에 올라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돌레(이사장 안수용)의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이 오는 28일 오후 7시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본 공연은 2019~2021년 총 13차례의 공연을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정읍민의 독보적인 공연으로 2019년 3월 28일 '시적(詩情)'이란 주제로 시작했다.

또한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해가 진행을 맡아 더욱 화제를 모았다.

2022년 분기별 1회로 진행되는 '농담'은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을 콘셉트로 진행 중이며, 사계절의 마지막 계절, 1년의 마무리와 '농담'에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채워 줄 게스트는 '농담'의 사회자였던 오정해가 소

리꾼의 모습으로 무대에 선다. 소리꾼 오정해의 모습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을 주최·주관하는 사회적기업 돌레의 안수용 이사장은 "농담은 새로운 주제와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로 풀어나가며,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 속에 내재되어있는 문화 DNA를 발현시켜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라는 키워드로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으로 문화가 일상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회적기업 돌레 홈페이지(dullea.kr)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정읍=김태환 기자

진안군립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로 명곡 만난다

27일 진안군 문화의집 마이홀서 코로나19 여파 3년 만에 '정기연주회' 개최

진안군립합창단(단장 김종필 진안부군수 지휘 박영근)이 오는 27일 오후 7시 진안군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군립합창단의 한국가곡 남촌, '눈' 및 합창곡 뚫어줘, 마이산, '거룩한 밤' 등 다양한 명곡과 함께, 특별출연 안기비(소프라노), 유태평양(국악인), 박하은(비올리스트)의 무대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음악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공연으로, 진안군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다양한 명곡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관람객과 함께 교감하며 합창의 매력을 전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광적으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립합창단은 1996년 창단해 매년 정기 연주회와 찾아가는 합창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산서중·고 윈드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 연주회 성황리 열려

산서중·고등학교(교장 오정근)에서 주최·주관하는 '제8회 산서중·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지난 21일 산서·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실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날 공연곡으로는 비범함 행진곡, 레미제라블, Dawn of a New Day 등 총 10곡이 연주됐다.

산서면 윈드오케스트라는 지난 2014년도에 창단돼 산서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자존감과 인성 및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운 문화예술 공동체이다.

현재 유기훈 지도교사와 중·고등학교생 3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연주



회 뿐만 아니라 전북 음악페스티벌 공연 등 내·외 축제 공연에도 참여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쳤다.

/장수=교광호 기자

2022 월간더문화

문화전주, 피어오르다

2022. 12. 27(화) 7:30 PM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Ten. 조태진



Ten. 지명훈



Bar. 석상근



Bar. 장광석

주최 주관 | 문화공간 이름 후원 | 노이노이 문화재단 후원 | 노이노이 문화재단 후원 | 노이노이 문화재단 후원 | 기획 | 이윤정

티켓예매 | 전석 3만원 / 네이브 2022 월간더문화 문화전주, 피어오르다 발매 후 예매 문의 | 063.223.5323 / 카카오톡 채널 '사단법인더문화' 1:1 대화